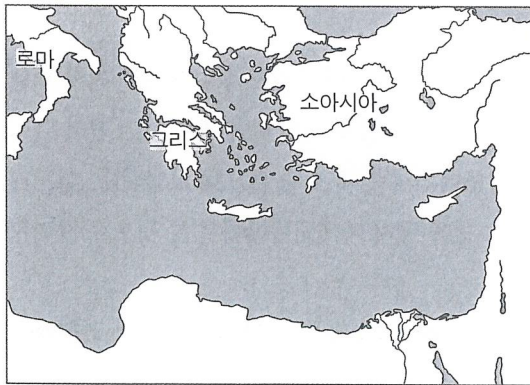


제 64 강

사랑을 담은 목회서신

■ 성경본문 디모데전서 1:1-6:21, 디모데후서 1:1-4:22, 디도서 1:1-3:15 ■

프렐류드(Prelude)



디아스포라 유대인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 쓴 편지를 주제로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며, 디도는 크레타섬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밖으로

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안으로는 각종 이단설이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유는 제한되고, 몸은 노쇠했으나 바울은 시련 속에 있는 사랑하는 두 제자 목회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들이 디모데전후서이고 디도서입니다. 이 편지들을 묶어서 '목회서신'이라 합니다.

I. 주요 내용

1. 이단에 대한 경고(디모데전서 1:3-20, 디모데후서 3:13-4:5)
2. 교회 지도자의 선별과 자격(디모데전서 3:1-13)
3. 믿음의 선한 싸움(디모데전서 6:11-21)
4. 크레타섬 목회(디도서 1:1-3:15)

II. 시대적 배경

바울은 한동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 다시 전도여행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소아시아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서쪽 스페인까지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레타섬에 들렀을 때에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교회를 돌보게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서는 디모테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니고볼리로 가는 도중에 디모테와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다가 오는 순교의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후서를 써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테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당시 마케도니아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 그들의 배가 크레타섬 부근 해안에서 파선되어 머물렀던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크레타섬을 다시 방문 하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신임하는 제자 동역자 디도를 남겨두고 복음 전파와 교회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많이 퇴락한 이 섬에서 교회의 새로운 조직 과 직임으로 위기에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디도서입니다.

〈연대표〉



III. 말씀과 해석

1. 이단에 대한 경고(디모데전서 1:3-20, 디모데후서 3:13-4:5)

본래 이단은 그리스도 복음과는 ‘다른 교훈’(딤후 1:3)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선별된 것’을 의미하는 이단은 특출난 교리나 주장을 지칭한 말이었습니다. 이단은 ‘보편적이지 않는 가르침’으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거짓 교훈을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단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에베소 체류 목적 중 하나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엡 1:3-4).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많은 초대 교회에 침투한 당시 이단은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교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 틀 안에서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꺼려했으며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행 15:5).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단은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위장한 ‘영지주의’(Gnosticism)였습니다. 플라톤(Plato)의 이원론(二元論)에 뿌리를 둔 이 사상은 영(靈)은 거룩하고 육(肉)은 타락했다는 양분론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영의 구원만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우주와 인간도 모두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고 교인들을 흔들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이단들과 대결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딤후 1:18).

2. 교회 지도자의 선별과 자격(디모데전서 3:1-13)

디모데에게 부탁한 바울의 두 번째 충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동시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사역을 동반합니다.

공동사역의 처음 직임은 감독직(監督職—episkopos)이었습니다. 감독은 신자들의 생활을 지도하며 때로는 가르치는 역할도 담당해야 했습니다.

공동사역의 두 번째 직임은 ‘집사직’(執事職—diakonoi)이었습니다. 집사는 구제

하는 일,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을 도우며 봉사하는 사역에 위임되었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구별된 신앙과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딤후 3:1-13).

| 직 분 | 갖추어야 할 점 | 버려야 할 점 |
|-----|---|--------------------------------------|
| 감독 | 일부일처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칠 능력 관용 집안을 잘 다스림 입교한 지 오래됨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받음 | 책망 거리 술을 즐김 구타 다툼 돈을 사랑함 |
| 남집사 | 정중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집안을 잘 다스림 | 일구이언 술 취함 부당이익을 취함 |
| 여집사 | 정숙 절제 충성 | 모함 |

감독과 집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3. 믿음의 선한 싸움(디모데전서 6:11-21)

지금도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싸우다 갇혔고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딤후 1:2)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딤후 4:6)를 선언한 후 “선한 싸움을 싸우고”(딤후 4:7) 싸움을 “사랑하는 아들”(딤후 1:2)인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모세 이후 하나님이 택하신 심부름꾼들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신 33:1). 예언자들(삼상 2:27, 왕상 12:22, 13:1 등)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들에게 붙여졌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것’(딤후 6:12)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딤후 6:14-16).

4. 크레타섬 목회(디도서 1:1-3:15)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에 위임하고(딤후 1:3) 디도는 크레타섬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딤후 1:5). 디도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딤후 1:4)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크레타섬은 추락 일로에 있었으며, 교회는 교인 이탈, 이단 침입,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목회자로 위임된 디도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 함께 사역하는 공동사역의 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세운 감독과 집사와 같은 체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 분 | 개인 성품 | 가정 형편 | 생활습관 |
|-----|--|------------------|--|
| 장 로 | 책망 거리가 없음 | 일부일처 믿는 자녀를 둠 | |
| 감 독 | 책망 거리가 없음 고집 세지 않음 급히 분내지 않음 선을 추구 근신 의로움 거룩 절제 | | 술을 즐기지 않음 구타하지 않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음 나그네 대접을 잘함 가르친 것을 실천함 |

그리고 디도는 믿음의 중심을 잃은 크레타 교회 신도들을 말씀 위에 서도록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했습니다(딤후 2:1-10). 다음 문장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교훈을 쉬운 말로 바꾼 글입니다.

(1) 나이 많은 남자에게

“육적인 욕심을 자제하십시오. 어린 사람 보기에 위엄 있게 보이도록 행동에 있어 신중하고 근신하며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2) 나이 많은 여자에게

“행실을 바로 가지시오. 남을 헐뜯지 말고 술에 중독되지 마시오. 젊은이들에게 착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3) 젊은 여자에게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집안 살림을 잘 꾸려 나가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성심으로 섬겨 그를 회개시켜 하나님께 인도하십시오.”

(4) 젊은 남자에게

“혈기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증거하십시오. 입으로 옳은 말만 하도록 노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5) 종에게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믿지 않는 주인이라도 그를 정성으로 섬겨 기쁘게 해 주십시오. 건방지게 말대꾸를 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며 언제든지 성심으로 충성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과 대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1 단계: 변론과 다툼을 피하라(딤후 3:9)입니다. 이단은 변론과 다툼을 일으켜 교인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론

과 분쟁을 피하여 분열을 막아야 했습니다.

2 단계: 훈계하라(빌 3:10)입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사랑과 진심으로 훈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설득합니다(마 18:15-17 참조).

3 단계: 멀리하라(빌 3:10)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의 회개보다 물들지 아니한 교인들을 보호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단자는 추방하고, 교인들은 믿음의 면역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신앙과 신념 위에 세워진 교육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V. 성찰과 나눔

1. 디모데전 · 후서와 디도서는 믿음의 두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올바른 목회자로 세우려 하는 노장 바울의 애뜻한 사랑과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름도 목회서신입니다. 깊은 사상보다 실제적인 충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감독과 집사를 세우라는 바울의 권면은 교회 역사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감독직과 집사직은 큰 의미에서 고린도전 · 후서와 에베소서에서 피력한 교회의 비유, ‘몸과 지체’, ‘다양한 은사 사역’의 후속으로 나온 통찰이고 제안이었습니다.

3. 그때 기다리는 예수의 재림은 늦어지고 로마 제국과 이단들의 도전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교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죽거나 흩어지고, 교회 지도력은 점점 약화되던 때 감독과 집사는 교회를 대표하여 신앙을 변증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감독과 집사직은 또 하나의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몇몇 감독과 집사들은 순교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했습니다.